



‘내 삶의 첫 자리는?’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과 웃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습니다. 그리고 덕담 중에 필요한 것은 마음에 담아 한 해를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자녀 된 도리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족과 함께 합동 위령미사에 참석하여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새해 덕담인 복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한 해를 살아갈 양식으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라.”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고 권고하는 비유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든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매고 있다는 것은 즉시 일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춘 모습이다. 등불을 켜 놓고 있다는 것도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즉시 맞아들이도록 준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밝혀 들고 깨어 있는 종은 자기 삶의 첫 자리에 늘 주인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주인은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첫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다 보면 하느님과 신앙은 제쳐 놓고 돈과 재물, 취미생활, 건강 등이 첫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야고 4,14) 혹시나 지금까지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이 두 번째 세 번째였다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오늘 미사의 입당송에서도 읊었듯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마태 28,20)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맞아 하느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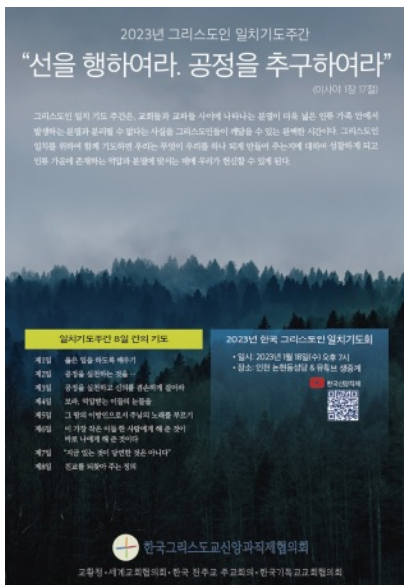


임효진 야고보 신부 | 덕산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민수 6,22-27
화 답 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 독 서	야고 4,13-15
복 음	루카 12,35-40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이사야 1장 17절)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미국 미네소타 교회협의회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미네소타는 인종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었으며, 최근에도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젊은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적한 문제점들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신들의 경험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덤덤히 이 일을 서술하고 있지만, 미네소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부조리의 역사를 일일이 들춰서 다시 들여다보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인종 분리적 시간이라는 ...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일치와 인류의 불일치 간의 접점을 드러내는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분열의 뿌리는 죄, 다시 말해 주님께서 피조물 전체에 바라시는 일치를 거스르는 태도와 행동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2023년의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맹렬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의 병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이사야 1:7) 미카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카서 6:8)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공의란 회복적 정의이며, 침묵 당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며, 불의를 만들고 유지하는 체제를 바꾸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마땅한 권리를 반드시 누리도록 촉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봅시다. “폭동은 침묵 당한 이들의 언어이다.” 정치나 법의 잣대로 보면 폭동은 납득받지 못할 행위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폭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빠른 대책과 도움이 없이는 사회가 존속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공동체가 변명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일치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드리는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시다.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새날에

도경희 스텔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빛을 잡으세요, 자 그리고 시작하세요.” 램브란트의 말이다.

우리는 어두운 산길 헤치듯 모든 날을 걷고 걸어 2023년 새해를 맞았다. 한결같은 세월을 우리는 이렇게 365일마다 끊고 다시 시작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요즈음은 희망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유행처럼 남발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자칫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까 염려될 만큼 현실이 매우 어렵고 고단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 ‘대룡골 둘레길’이 있다. 새벽에 걷는다. 묵주알 헤며. 추워서 하늘이 팽팽했고 키 큰 전나무들이 우뚝하다. 누리의 첫 새벽, 크고 작은 별들이 눈을 깜박이며 지상의 이방인을 신기한 듯이 바라본다. 어둠을 만나 반짝이는 샛별 달별 나도 바라본다. 내 어리던 날 보던 별자리다. 큰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케페우스와 북극성을 눈과 가슴에 아련히 담아 본다. 신비롭다. 은하수가 흐르고 유성이 멀리 날아가기도 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겠지. 등에 땀이 난다. 날개 달린 시간의 수레가 다급히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나에게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어둠은 부스러기처럼 사라지고 해뜨기 전 장밋빛 여명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주 짧은 순간 잠깐 볼 수 있다, 선물처럼.

새해 첫날, 사직단에서 북과 팽과리를 치며 사람들이 해맞이를 한다. 드디어 떠오르는 해! 샘물에 씻은 듯 환하다. 어둠을 씻어주는 장엄한 순간이다. 성호를 긋고 가슴에 손을 모은다. “나의 주님이시여! 올 한 해가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가령,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더 자주 웃기,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기,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기, 어른들께 조금 더 자주 찾아가기, 한 계절에 신앙 서적 한 권씩은 꼭 읽기, 신약성서 필사 마무리하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꾸자는 생각을 해 본다.

그저 순하게 한세상 살면 되는 것을, 봄날처럼 온화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은 향기로 남지 않던가. 뭘 그리 장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살가운 마음 한 번 제대로 전할 겨를 없이 단호히 앞만 보고 살아온 걸까. 가까운 인연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새삼스럽게 귀하고 귀하지 않은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만남’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50여 년 독일 함부르크한인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주님 성탄 대축일에 함부르크 한인공동체를 찾았다. 성전 제대 앞에는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노래연습을 하며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삼십 명 정도 되어 보이는 남녀 어린 아이 구성원으로 다채로웠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사람이 ‘요셉 마리아회’ 가족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이들로 인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교우들은 성탄미사를 하기 전에 벌써 설렘이 가슴 한가득 찬 듯했다.

예수성심성당의 3시 주일미사

주일에는 한인공동체가 독일 예수성심성당을 빌려 오후 3시에 미사를 봉헌한다. 한국말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온 사람들의 인사가 성전 안팎을 수놓았다. 대축일 미사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레니 신부의 정성스런 주례로 거행되었다. 영성체가 끝나고 요셉마리아회 가족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특송으로 교우들 가슴속에 평화와 감동이 전해졌다. 그리고 사제는 산타가 되어 아이들에게 자루에서 꺼낸 선물주머니를 전달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교우들은 미사 후 다과를 나누며 성탄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로비를 채웠다.

만남성당의 평일미사와 신심단체 활동

마리엔돔 지역 건물입구에는 성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다. 2층에는 스무 명 남짓 미사를 할 수 있는 경당과 주방, 회의실 2개와 사제관이 고리처럼 연결된 조출한 구조의 만남성당이 있다. 회의실에서 만난 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 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 올리아, 전례부장 이순자 마리아, 그리고 여러 번 회장을 역임한 김진호 프란치스코와 최영숙 테레사 부부로부터 50여 년 절절한 나라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다.

목요일 저녁 7시 미사에는 <반석의 노래>를 이재혁 신부의 기타반주를 곁들여 불렀다. 마침 파리에서 공부하는 이재호 베드로 신부가 방문하여 미사를 주례했다. 경당에 빼곡한 교우들은 오래된 어른들과 유학생 청년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었다. 미사 후에 참관한 청년 레지오는 단원은 적지만 성모님을 향한 청량한 기도소리가 참으로 우렁찼다. 25년 동안 이어오는 레지오 마리아는 믿음의 샘 뿌리아 산하에 청년 사랑의 모후Pr.과 자비의 모후Pr.과 평화의 모후Pr.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 레지오



52년 절절한 사랑

간호사, 광부, 영사관, 기타 등등의 일자리로 고국을 떠나 함부르크에 살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이 우여곡절 끝에 마산교구 김차규 신부와 닿아 1971년 9월 17일 한인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2대 구병진 신부 때 매우 왕성했는데, 그 후에는 독일·서울대교구·광주대교구에서 맡았다. 2002년 다시 마산교구에서 11대 이제민 신부, 12대 서정범 신부, 13대 최태식 신부, 14대 최종태 신부, 15대 박철현 신부가 사목했다.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누구랄 것 없이 몇 차례씩 회장직을 짊어지고, 다른 소임도 기꺼이 맡으면서 50여 년 세월이 흘렀다. 청춘을 불사른 지난한 세월 같지만, 사랑으로 이어온 시간이었다. 여기서 세례 받고 결혼도 했다는 최영숙은 어떤 분열도 우리의 미사를 통해서 용해시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했다. 무신론자였던 김진호는 부인 따라 입교하여 완전히 주님의 포로가 되었고, 자나 깨나 이 공동체의 안녕에 노심초사다. 30여 년 전 개신교에서 개종했다는 이순자는 우리말 미사가 얼마나 좋은지, 열악한 환경에도 사제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벅찬 감정으로 말했다. 허재열은 청소년 때 교리공부를 하고 미루었던 세례를 여기서 받아 성가정을 이룬 것이 큰 기쁨이라고 했다. 한말조는 애태우는 교섭 끝에 함부르크의 첫미사를 수녀원 경당에서 바쳤을 때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년이 된 자신들을 돌아보며 세대교체에 대한 고뇌가 크다. 그러니 신유경을 바라보면 대견하고 고맙다. 독일로 유학 와서, 10년 전에 한인성당의 구성원이 된 신유경은 요셉마리아회에서 활동하다 이번에 사목회 부회장이 된 차세대를 이을 청년일꾼이다.

이재혁 신부는 지난해 7월에 부임하여 사목위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한인공동체와 독일 문화를 파악하는 중이다. 본당과 더불어 지방공동체 브레멘, 하노버, 오스나부르크에 매월 1회 그리고 노르웨이는 일 년에 2회 방문한다. 공동체의 청년활동에 주목하며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청년들을 ‘요셉마리아회’로 구성하고, 다른 청년들은 직장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소그룹으로 나누어 결속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만남50』 발간

한인공동체 설립 50주년을 맞아 1세대들은 은혜로운 만남을 기록했다. 청춘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소중히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훗날을 당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로 큰잔치를 할 수도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본당뿐 아니라 4개 지방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봉헌했다. 그들이 감싸고 거두어 왔던 공동체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묶고 설립 50주년 기념미사를 바치는 그날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현재 함부르크에는 약 3천여 명의 교민이 있고, 교우는 380명 정도이다. 주일미사에 100~150명가량 나오던 수가 거리두기로 60~80명으로 줄어 걱정이었다. 그나마 이번 성탄미사에 130명이 모여 무척 고무적이었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좋아서 외쳤다.

예수성심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한인공동체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본당의 날로 하여 기리고 있다. 연례회, 주일학교, 여성봉사회, 구역별 담당자들도 저마다 맡은 책임을 힘껏 보태며 이 공동체를 가꾸고 있다. 이재혁 신부는 월보 <만남>을 알차게 편집하여, 공동체의 동향을 공유하고 영성생활을 키우는 글도 게재하여 결속을 다지려고 한다. 사목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여, 매번 미사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끈끈한 ‘만남’을 나누려고 한다.

교구/본당

전국 관리국장회의

일시: 1월 25일(수) / 장소: CBCK

전국 사무처장회의

일시: 1월 26일(목) / 장소: CBCK

전례분과위원 연수

일시: 1월 29일(주일) 10: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성서 그룹공부 모집안내

대상: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
모집주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그룹모임: 지역별 모임과 Zoom(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010·2549·3056(담당 신부),
010·4596·1533(담당 봉사자)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1월 26일(목) 13:30

장소: 교구청

215차 ME주말 안내

일시: 1월 27일(금) 19:00~29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문자 발송- 부부 이름
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일정: 2월 3일(금)~12월 17일(주일)

2박 3일 10회, 1박 2일 1회,

현장실습 별도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모집: 40명(선착순 모집)

※ 인원 미달 시 교육 취소 될 수 있음

교육비: 1백 70만 원, 현장실습비 별도

분할 납부 가능, 희망시 사회복지국

(055·249·7042)으로 연락바랍니다.

접수: 신청서를 1월 27일(금)까지 팩스 전송
(249·7044)

계좌: KEB하나은행, 160-890100-04505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22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 카톡: 분더에듀

30대를 위한 신약통독(zoom)

일시: 3월~11월(주일) 16:00~18:00 / 수강료: 3개월 12만 원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설립 10주년 할인 이벤트

금액: 일반 2만 5천 원, 단과 1만 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장재동본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영제(아우구스티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용범(가브리엘)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안미자(레지나)

총무분과위원장: 정동진(미카엘)

전례분과위원장: 홍현아(젤마)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석렬(스테파노)

구역/복지분과위원장: 신현자(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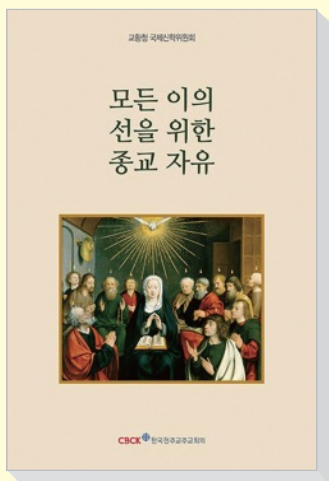
시설분과위원장: 임성호(세영알렉시오)

청소년분과위원장: 장현갑(사도요한)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설 명절로 기도회 없습니다.			010·5072·5612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원하는 날	원하는 곳에서	010·5155·5505	대상: 신나게 살아볼 훈남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 성지순례(6명 이상 매일) 3월 10일 / 3월 13일 / 3월 28일 제주순례 ■한국 성지순례 3월 17일(금)~19일(주일) 수원교구 3일(부산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우리농 생명공동체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	--	--	--



- 분류: 교황청 문헌(국제신학위원회 종교자유소위원회)
- 번역: 박준양, 안소근, 최현순
- 규격: 신국판(148×220mm)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본보기이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문헌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이후, 더욱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적, 세속주의적이 된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 자유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또한 종교 자유의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사이의 올바른 통합의 근거들을 설명합니다.

제1장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2장은 ‘종교 자유 선언’의 가르침, 그리고 공의회 이후 교도권의 가르침과 신학에서 이루어진 그 수용을 회상합니다. 제3장에서는 개인의 종교 자유를 개별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제4장에서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다루며, 특히 사회생활의 중간 기관으로서 종교 공동체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제5장에서는 국가와 관련하여 종교 자유를 고찰하고, 종교적, 윤리적, 가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 개념이라는 이념에 포함된 모순을 지적합니다. 제6장에서는 종교 자유가 공동생활과 사회적 평화에 미치는 공헌을 다루고, 제7장에서는 오늘날 교회 사명에서 종교 자유가 차지하는 중심 위치를 부각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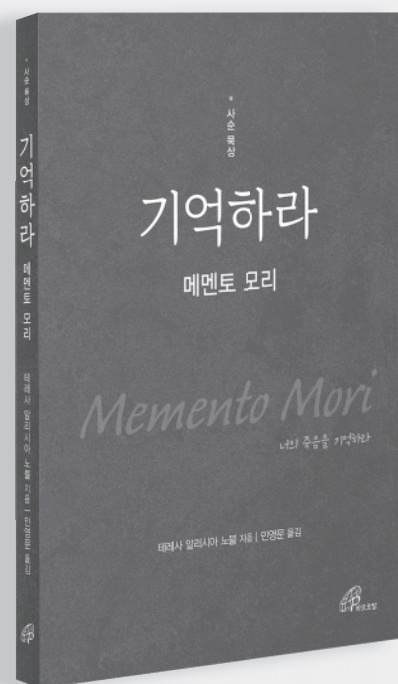
기억하라-메멘토 모리 (사순 묵상)

부활 신앙을 키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

죽음을 묵상하는 오래된 영적 훈련 전통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를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여 삶의 변화를 이루고 부활 신앙을 깊이도록 돕는 사순 묵상집이다.

오래된 영적 훈련 전통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를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묵상서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도록 이끌어 준다.

날마다 묵상의 구성은 여섯 단계로 짜여 있다. 첫째 단계는 당일 전례 말씀의 성경장절을 소개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묵상을 이끌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매일의 전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메멘토 모리 묵상 글이 주어지고, 넷째 단계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여러 상황에 놓인 세상의 많은 이를 위한 중재기도로 이어진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교부들과 성인들 말씀이 주어지고 여섯째 단계에서는 묵상과 기도를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도록 이끈다. 이를 통해 사순절 여정을 전례 말씀과 연결된 묵상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의 시선으로 성찰을 훈련하도록 동반해 준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테레사 알리시아 노블
- 옮긴이: 민영문

♪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우리가 맞은 설날은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다(음력). 전 세계의 공식적인 새해 첫날은 그레고리력(양력)을 표준으로 해서 양력 1월 1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대림 1주로 맞는다.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 1월 1일 모두 법정공휴일이다. 양력 달력상 명칭으로는 1월 1일을 '신정'이라 하고, 음력 명칭은 '설날'이라고 부른다. 설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에 일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길 기원하는 마음과 해를 뜻하여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96년부터 그레고리력 사용을 시작해 양력 1월 1일을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지내면서 우리 민족은 음력 1월 1일 즉,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 하여 명절로 지켜왔다. 1910년 이후에 음력 설날을 없애려 공권력까지 동원하며 신정을 강요했다. 광복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 동안에 '이중과세(신정과 구정을 쇠는 것)' 방지를 명분 삼아 구정을 지내는 것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구정을 설날로 인식해 1985년에 음력설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했고, 1989년부터 민속의 날을 '설날'로 이름을 바꾸고 설날을 3일 연휴(음력 12월 30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는 음력 1월 1일 음력설을 전통적 명절로 간주하면서도 묵은 해를 보내고 맞는 한 해의 첫날로 새해 첫날의 의미는 양력 1월 1일 양력설이 더 강하다.

어렸을 때 설날의 추억은 설빔과 세뱃돈이다. 엄마는 우리들에게 설날에 입을 설빔이라 부르는 새 옷을 항상 사 주셨다. 설날에 '설빔'으로 갈아입고, '세배'하였다. 어른들에게 돌아다니며 세배를 드리면 언제나 세뱃돈과 함께 '덕담(德談)'을 해 주셨다. 세배드리기 위해 친척집과 이웃집에 간 것인지,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인지 명확한 구분이 애매했어도 늘 기대에 찬 마음으로 어른들께 세배드리러 간 기억도 새록새록 하다. 살얼음 동동 뜬 식혜, 찰이나 고구마를 우려내어 하루 꼬박 저으면서 고와 주셨던 엿, 들기름을 듬뿍 발라 구운 김, 푸짐한 음식들, 방앗간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을 먹었던 행복한 기억이 난다.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음식 만들고 정 나누던 일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명절문화도 간소화되고 함께 만나 정을 나누고 보듬고 하는 정서도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시대 풍속도는 농경사회의 시간개념에서 설날에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내고 새해 인사를 전하는 상황에 익숙해졌다.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점점 개별화가 되어가는 현시대 정서의 영향이다. IT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명절 신풍속도'는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태블릿 PC를 통해 국내의 본가와 연결, 세배하거나 차례를 지낸다. 이제는 세뱃돈은 앱으로, 제사음식은 배달로 받을 수 있다. 세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날인 오늘,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새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설 명절을 기대해 본다.